

■ 과학기술부 '2030 미래상' 시나리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예측조사와 제1회 미래 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참고해 2008년 남자, 2030년 여자라는 미래상 시나리오를 최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는 2008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한 남자가 2030년에 깨어나면서 겪는 이야기를 토대로 미래의 '꿈 같은 세상'을 실감 있게 그리고 있다. 시나리오 전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줄기세포 통해 죽은 뇌 복원 냉장고가 알아서 식품 주문

2008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구현인 씨는 2030년 3월3일 줄기세포와 나노로봇 치료를 받고 깨어난다. 줄기세포를 통해 죽은 뇌를 복원했고 나노로봇으로 망가진 신체기능을 되살렸다. 하지만 형인씨는 22년이라는 세 월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미래쇼크'에 걸리고 말았다. 22년간 상상도 못해 본 현실에 직면, 당황스럽고 두려움마저 갖게 된 형인씨는 기술심리학자인 김래미씨와 휴대폰 상담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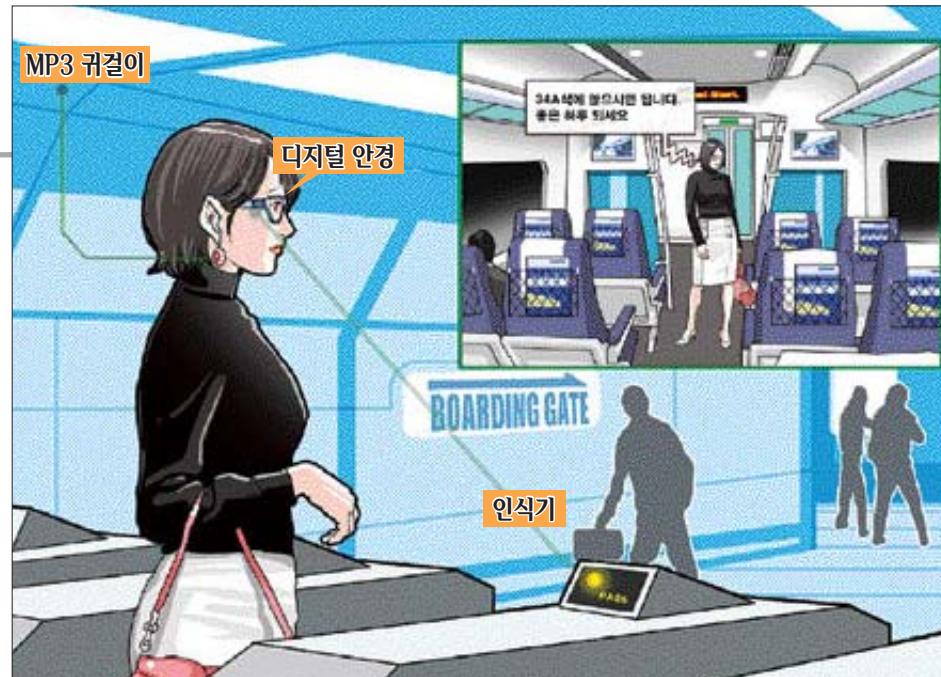
형인씨는 휴대폰을 통해 래미씨 집을 엿볼 수 있었다. 유비퀴터스 컴퓨터(UC)인 '유비'가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아서 조절하며 식구들과 대화를 나눈다. 냉장고는 모든 물건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 정보를 분석해 떨어진 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청소로봇은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최고 요리사의 조리법이 내장된

자동요리기가 식사를 준비한다. 아이의 등교 준비물은 육아로봇이 챙겨준다. 환경운동가인 래미씨의 남편 신유식씨는 휴발유가 아닌 수소전지를 충전소에서 보충해 차를 몰고 설악산과 금강산 등을 누빈다. 석유는 고갈된 지 이미 오래고 수소경제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유식씨는 잘 분해되지 않는 산 속 쓰레기에 미생물보다 강력한 환경 나노로봇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있다.

육아 로봇 아이들 등교 책임

며칠 후 형인씨는 응기를 내어 도시로 나갔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디지털안경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물에 부착하고 다니는 귀고리나 핀은 태양열이나 신발뒤축발전기로 충전하는 MP3



2030년이면 위치기반서비스(LBS) 기능이 있는 디지털안경과 MP3 귀고리 등이 지금의 휴대폰처럼 흔해져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탈 때 굳이 지갑을 내밀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이다.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타기 위해 굳이 지갑을 꺼내거나 카드를 내밀지 않아도 이 전자제품들이 알아서 계산한다.

형인씨는 자동운전 버스를 타고 시내를 다닌다가 버스가 해키의 공격을 받고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구조 대원들이 달려와 보통 사람의 몇 배의 근력을 내게 하는 웨어러블로봇을 입고 사고현장을 수습한다. 형인씨의 몸에는 모든 의료정보가 기록된 베리칩이 심어져 있어 원격 의료기기로 응급처치를 한다. 병원에 후송된 형인은 백혈구보다 치료효과가 탁월한 나노의료기계로 치료를 받는다.

래미씨의 아들 하늘이는 청각 장애우지만 주변의 소리를 글자로 바꿔 보여주는 안경을 쓰고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환자도 뇌파로 로봇을

조종해 생활을 유지한다. 장애는 더 이상 생활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

수소 전지車로 금강산 관광

전자책은 모니터처럼 빛이 나지 않고 종이 위에 쓰인 글자와 똑같아 보인다. 래미씨의 딸 벌이는 3차원 가상현실 교육서비스인 체험학습 네트워크에서 세계 곳곳, 우주 환경 등을 체험하며 배운다. 중급 정도 번역이 가능한 만국어 번역기로 세계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술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없지 않다. 래미씨의 딸 벌이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매트릭스 병 증상을 보이고, 유전자변형 식물이 생태계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보인프라 로드쇼

한국EMC 5일 무등파크호텔

세계적인 정보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한국EMC(대표 김경진)가 오는 5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룸에서 '2008 EMC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로드쇼'를 연다.

한국EMC는 지방 고객들의 IT 정부 관리 요구를 정확히 파악,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의 수요 발굴을 위해 로드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드쇼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4일), 대구(6일), 부산(7일) 등 4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참가 희망자는 로드쇼 웹사이트(korea.emc.com/events/roadshow.htm)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정부, 통신요금 20% 인하 '없던 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폐기…통신시장 재편 '올 스톱'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전 공언했던 '휴대전화 통신비 20% 인하' 약속이 하언이 됐다. 지난 1월 당장이라도 내릴 듯하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지지부진하니 결국 지리멸렬하고 말았다.

통신요금 인하에 폐지, 이동통신 재판부의 의무화 등 통신시장을 확 바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공중분해 됐다.

따라서 업체간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폐기 다시 원점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할인율을 제한 폐지 ▲이동

통신 재판부 의무화 등 통신시장 판도를 180도 변화시킬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한 채 17대 국회 회기가 사실상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4월 9일 제18대 국회의 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으로 인해 3월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안은 아직까지 조직 구성조차 못한 방송통신위 설립과 충선이 맞물리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 과기정부 간사인 유승희의원 측은 "총선 뒤 곧바로 관련 상임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과 담당 보좌관이 모두 바뀌는데다 개정 조문이 수백개에 달해 6월 국회 통과도 현실

적으로 어렵다"며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포까지 3~6개월 소요되므로 사실상 연내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9월 시장진출 모색 업체들 막막

오는 9월 통신시장 규제완화에 맞춰 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사업자들에게 불똥이 뛰었다.

통신시장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KT나 SK텔레콤의 통신망과 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이동통신 재판부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온세텔레콤, 케이블TV 사업자,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관련 법이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됐다는 것이다.

통신 강자 KT와 SK텔레콤도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통신요금 인하제와 결합상품 할인율 제한 폐지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SKT는 또 이날부터 장기 가입자에게 맹내 통화료를 최대 80% 할인하는 'T끼리 플러스 할인제도'도 함께 시행하며, 가족 합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동일하게 10~50% 할인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주인 고 산씨와 무선교신 하세요"

초·중·고교생 대상 무선교신 희망자 모집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머물 한국 최초의 우주인 고 산씨와 아마추어 무선교신을 할 학생을 선발하는 행사를 실시된다.

한국 최초로 실시되는 우주인과 청소년들의 무선교신은 오는 4월 1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무선교신 희망자를 모집하고, 개인 희망자에 대해서도 학교장 추천과 별도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처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홈페이지에 각 지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신에 필요한 아마추어 무선기사(HAM) 자격증을 갖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자격 시험(특별검정)을 실시해 전국에서 3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한국 최초로 실시되는 우주인과 청소년들의 무선교신은 오는 4월 1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무선교신 희망자를 모집하고 개인 희망자에 대해서도 학교장 추천과 별도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처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홈페이지에 각 지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이동3사 표준요금제 비교

사업자	상품명	기본료	통화요금(10초당)	<단위·원>	
				비고	
SK telecom	일반요금제	13,000	20	심야 10원, 할인시간대 13원, 무료통화 10분, CID(발신자표시) 무료	
	T 표준요금제	12,000	18	CID 무료, 3일 출시	
KTF	표준요금제	13,000	19	심야 10원, 할인시간대 14원, 무료통화 10분	
	소표주요금제	12,000	18	CID 무료, 데이터 서비스 50%, 추가 할인(05~09시)	
LG Telecom	표준플러스	13,000	18	평일·휴일·할인시간대 15원	
	신표준플러스	11,900	18	1일 출시	

SKT-LGT 기본료 내리기 전쟁

망내 할인 이어 표준요금 앞다퉈 내려

제2차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전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들이 자사 가입자간 맹내 할인에 이어 모든 요금 상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요금'을 앞다퉈 내렸다.

2일 이동3사에 따르면 업계 1위 SK텔레콤은 3일부터 일반요금제의 기본료를 1만3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1천원 인하하고, 통화료도 10초당 20원에서 18원으로 낮춘 새로운 상품인 'T 표준요금제'를 출시한다.

LGT는 기본료를 인하한 대신 할인 시간(오후 7시부터 12시까지)과 통화료 인하(10초당 15원 적용) 옵션을 없앴다.

반면 KTF는 SKT·LGT와 달리 기본료 인하에 경쟁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경쟁사들이 기본료를 인하했어도 KTF가 이미 시행중인 '쇼 표준요금'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SKT는 또 이날부터 장기 가입자에게 맹내 통화료를 최대 80% 할인하는 'T끼리 플러스 할인제도'도 함께 시행하며, 가족 합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동일하게 10~50% 할인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십일부동산

☎ (02) 521-5210, 520-5211~5232
(광주영신 산림점, 대인동 소방서 건물)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2) 458-5210 ~ 520-5205
(첨단지구 부평A LC빌딩 사거리)

★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뮤류창고 특지실버시설 첨단종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첨단 중심 상업매매 정부지정청사 2008년 1월 314평 영업·호반비밀도 문화 145, 135평 비아동 호수정원 부근 유동상가 100평 청단 원룸 건물 급매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폐기 다시 원점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할인율 제한 폐지 ▲이동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 (061) 833-6669
한 010-8004-6669

별장·농장등 다용도개발가능 한필지6천200평 (마을인)

평당/20만원.
(교환가능)
고흥비단정사 2008년 1월 314평 영업·호반비밀도 문화 145, 135평 비아동 호수정원 부근 유동상가 100평 청단 원룸 건물 급매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폐기 다시 원점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할인율 제한 폐지 ▲이동

법원 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담당)

062-226-0047 ~ 8